

第108回 國會會議錄 開會式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81年 9 月21日(月) 午後 2 時開式

第108回國會(定期會) 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 대한 敬禮
- 1. 愛國歌 齊唱
-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를 爲한 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司會 儀典課長 劉秀政)

(14時 2 分 開式)

○儀典課長 劉秀政 지금으로부터 第108回 國會 定期會 開會式을 舉行하셨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國旗를 향하여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齊唱하시겠습니다.

齊唱은 錄音前奏에 따라 1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다음은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을 올리겠습니다.

(一同默念)

着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丁來赫 尊敬하는 大法院長 閣下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과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는 오늘 第5共和國 出帆以來 처음이 되는 定期國會를 開會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月11日 第11代 國會가 歷史的인 開院式을 가진데 이어 第107回 臨時國會를 召

集하여 새時代에 副應하는 새國會像 定立을 위한 힘찬 巨步를 내딛은 바 있습니다.

새國會의 開院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議員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眞摯하고도 誠實한 議員像에 대하여 本人은 뜨거운 敬意를 表하면서 第11代 國會의 앞날에 대하여 믿음직한 期待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會期中에는 國民의 代辯者로서의 使命感을 바탕으로 民意를 反映하는데 솔기를 다하였으며 國政을 審議하는 過程에서는 理解와 妥協 對話와 和合의 姿勢로서 議政의 內實을 거두었습니다.

休會期間中에는 懸案問題들을 處理하기 위한 該當 常任委員會의 活潑한 活動은 물론 議員外交를 積極的으로 展開하여 새時代 새國會의 참모습을 定着시키는데 不斷한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蔡汝植 副議長을 비롯한 16名의 同僚議員들이 지금 이 時刻에도 IPU會議에 參席하여 눈부신 活動을 벌이고 계시는데 이들의 勞苦에 대하여 激勵와 致賀의 말씀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本人은 오늘 第108回 定期國會를 開會하면서 이 集會야말로 새國會가 構成된 다음 처음으로 召集되는 定期豫算國會라는 點에 留意

하게 되고 새삼스러운 感懷를 禁할 수 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부터 33年前인 1948年 5月에 制憲國會가 開院된 이래 第10代 國會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議會政治는 運營上的 試行錯誤와 波瀾 많은 迂餘曲折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어두운 斷面들이 執權勢力의 我執과 獨尊에서 비롯되었던 議員 個人的 資質未洽과 所屬團體의 經綸不足에서 緣由되었던 間に 結果的으로는 議會民主主義의 漂流만을 가져왔으며 國會를 바라보는 有權者들의 腦裡에 陰影을 드리우게 되었던 것을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 해에는 國基마저 危殆롭게 하는 混亂과 無秩序가 露呈되어 우리 國民들은 國家將來에 대한 不安感으로 國運을 걱정하게 되었으며 美國을 비롯한 自由友邦諸國도 韓半島의 情勢展開에 깊은 憂慮의 빛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國民들은 混亂과 危機에 直面할수록 더욱 沈着하고 더욱 強靱한 意志로 그 難局을 克服하였으며 슬기로운 判斷으로 新憲法 新指導者를 選擇하여 政治的 安定基調를 確立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政治的 安定은 곧바로 經濟分野에서의 活性的인 回復을 可能토록 하였고 社會氣風에는 清新한 바람을 일도록 하였으며 國際社會에서의 韓國의 威信과 地位를 한층 向上시켜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第2의 跳躍期에 뛰어들어 正義로운 福祉社會 具現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本人은 우리의 憲政史를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要約하면서 우리가 處해 있는 오늘 의 意味와 來日에 대한 無限한 可能性을 되새겨 볼 때 이번의 第108回 定期國會가 지니는 막중한 意義를 強調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第5共和國의 出帆以後 新憲法 新國會法에 따라 召集된 첫 豫算國會이니만큼 이번의 國會 會期를 通하여 新時代에 副應하는 民主的이고 收穫있는 國會像을 定立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政府에서 提出한 新年度 豫算案과 諸般 法律案 등을 審議함에 있어서 國力伸張과 民生安定이라는 共同의 目標을 追求하는 立法府와 行政府가 理想的인 「파트너 쉽」을 發揮하는 하나의 定型을 摸索하고 그 定型을 定着시켜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來年度 豫算案이 國民生活와 直結된다는 脈絡에서 뿐만 아니라 第5次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의 始動年度 豫算案이라는 點에 비추어 보아 議員 여러분께서 平素에 蓄積하신 經綸과 專門知識과 睿智를 總集注 하셔서 浪費없고 效率이 極大化될 豫算案이 되도록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國務委員 여러분께서는 豫算案과 諸般 法律案의 審議過程을 通하여 政府의 施政方向을 소상하게 正確히 開陳하여 國民들에게 周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議員들이 代辯하는 참다운 民意가 收斂될 수 있도록 誠心誠意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行政當局의 苦衷이나 隘路事項이 있다면 이것을 率直히 밝힘으로써 國民들의 理解와 議員들의 協調를 求하여 國民과 議會 그리고 政府가 渾然一體가 되어 希望찬 새해 보람에찬 80年代를 創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本人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必要도 없이 우리 韓半島의 安保情勢는 勿論 國際情勢는 緊張속에서 流動 變轉하고 있습니다.

지난 70年代初에 造成되었던 東西共存과 緊張緩和의 趨勢는 80年代에 들어서면서 形骸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과 海軍力의 挑發的인 增強 「이란」 「이라크」戰爭 美國과 「리비아」의 衝突 南「아프리카」와 「앙고라」의 戰爭 「폴란드」의 陣痛 등등 그 어느 하나도 單純한 局地的 紛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世界平和를 뒤흔들어 놓을 變數要因을 內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不安과 挑發의 可能性이 가장 濃厚한 곳이 韓半島라는 見地에서 볼 때에 最近의 北韓傀儡集團의 白翎島上空 侵犯 美軍偵察機에 대한 「미사일」攻擊 등 露骨的인 軍事的 冒險의 恣行은 그들이 韓半島의 武

力赤化統一 妄想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偽裝平和攻勢에도 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民族의 生存과 國民의 生命 財產保護라는 第1次的 命題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政治人들은 國論分裂을 嚴戒하면서 國民意志를 團合시키는 凝結劑 役割을 擔當해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本人은 오늘 定期國會의 開會에 즈음하여 豫算案을 비롯한 諸般 法案들을 審議함에 있어서 議員 여러분에게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追究해 나갈 目標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 目標를 向해서 繼續 不斷히 邁進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넘보는 外部의 敵은 共產主義 侵略勢力이며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内部의 敵은 混亂을 惹起시킬 수도 있는 潛在力 要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國會에서의 議政審議의 焦點은 共產主義 侵略을 擊破할 수 있는 安全保障의 強化는 물론 低所得을 追放하여 豊饒한 生活를 營爲할 수 있게 하고 健康한 生活를 阻礙하는 疾病과 公害를 追放하여 快適한 文化生活를 營爲하게 하고 不條理와 不便의 要素들을 追放하여 正義롭고 살기 좋은 社會를 만든다는데 集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새國會法에 따라 運營되는 最初의 定期國會임을 留意하셔서 모든 審議過程이 國會法에 따라 圓滑하게 進行되기를 擔부하는 바입니다.

法을 지키는 것은 法에 屈從하는 것이 아니라 法을 常識化하고 體質化해 나간다는 것이라 할진대 國會法의 遵守야말로 法을 만드는 우리들 自身의 當然한 行動律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品位있는 代辯者요 清廉한 指導層으로서 國民들의 期待에 副應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品位와 清廉을 義務로 생각

하느니 보다는 이를 자랑스러운 矜持로 간직하는 政治人이 될 때 이곳 汝矣島의 雄壯한 議事堂은 그 外形에 못지않게 새 時代 新歷史를 創造하는 精神的 威容을 誇示하게 될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그 時代를 살아가는 秩序가 있고 規範이 있고 狀況倫理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새 時代를 創造해 가는 過程에서 우리는 時代精神에 逆行하는 思考方式이나 過去의 慣行을 墨守하려는 無分別을 嚴히 警戒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不斷히 進展되는 새로운 歷史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多少의 아픔이 뒤따른다 해서 國民의 多大數가 바라는 國政의 諸般 改革에 躊躇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慎重과 熟考를 缺한 拙速立法으로 말미암아 國民에게 累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90日동안 우리의 職務를 誠實하게 遂行함으로써 正義로운 福祉社會國家를 建設하는 第5共和國의 터전이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해서 歷史속에 名譽로운 第11代 國會의 첫 定期國會로 記錄될 수 있도록 努力하십시다.

아무쪼록 새 時代 새國會像 定立이라는 歷史的 使命을 賦課받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敬虔한 姿勢로 議政活動에 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健勝과 幸運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儀典課長 劉秀政 이상으로 第108回 國會 定期會 開會式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4時21分 閉式)